

치 사

결실과 수확의 계절답게 풍요로운 하늘과 바람이 장안사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불자님의 마음에 담긴 정성이야말로 어느 것에도 비할 바가 없는 듯합니다.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전통사찰로 일신하고 현대인들에게 더욱 친숙한 여가와 문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장안사 사부대중의 원력은 계절의 청명함에 비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장안사 개산문화축제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을 담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고, 장안사를 창건하신 원효스님의 화쟁과 무애정신을 깊이 돌아보자는 성찰의 마음가짐으로 백차(白茶)헌다례를 복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두는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헌신하신 뜻을 오늘날 마음 깊이 기리고, 현재의 삶에서 실천하자는 단단한 다짐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일천 삼백 여년동안 불법의 수호와 불법홍포를 통해 시대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였던 도량에, 이렇듯 사부대중의 원력이 이루어낸 공덕이 장안사 개산 1342주년을 더욱 향기롭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대웅전과 석가여래삼불좌상이 국가 보물로 지정되고, 연이어 다수의 성보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천년고찰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은 종단적으로도 큰 모범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는 시대마다의 원력과 신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대가 그래왔듯이 그리고 후손이 그러하기를 바라듯이, 우리는 원력과 신심으로 언제나처럼 정성스런 발원을 품었기에 오늘 이 자리는 어느때보다 깊은 공덕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불자님의 청안청락을 바라며, 공심과 소신으로 열정을 다해 온 주지 정오스님과 소임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장안사 1342주년을 맞이하는 개산문화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언제나처럼 사회와 함께하고 시민이 함께 이루어 가는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도량이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10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